서울 도심에 불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오픈

연화사, 1월 17일 'MJ 스튜디오' 유튜버 등에 공간·장비 제공
묘장 스님 "창작자에 노하우 지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서울 연화사는 1월 17일 'MJ 스튜디오'를 공식 개소하고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을 운영하는 불자 크리에이터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지 묘장 스님과 불교 크리에이터들의 현판 점등식 모습.

불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열린 스튜디오가 서울 도심에 마련됐다.

서울 연화사(주지 묘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는 1월 17일 경내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공간 'MJ 스튜디오'를 공식 개소하고,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을 운영하는 불자 크리에이터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MJ 스튜디오'는 묘장 스님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유튜브로 비대면 법회와 경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련된 공간이다. 처음엔 카메라 한 대, 노트북 한 대로 시작했지만 이후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면서 이를 인연 있는 불교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해 왔다.

묘장 스님은 "크리에이터들이 열악한 장비나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MJ 스튜디오' 시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빛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공간을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묘장 스님은 'MJ 스튜디오'가 방송 공간만이 아닌 불교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스님은 "유튜브 등을 처음 시작하려는 이들과 방향성과 콘텐츠를 함께 고민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세무적인 문제도 지원함으로써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MJ 스튜디오'에서 촬영과 방송을 하고 있는 불교 크리에이터들도 함께했다.

유튜브 채널 '비구니 연습생'을 운영하는 불교미술 작가 계소영 씨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7만원짜리 마이크와 다이소에서 산 삼각대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묘장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곳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좋은 시설과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신 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열심히 저의 몫을 다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청요' 운영자인 불교미술 작가 이승현 씨는 "작업실이 없어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묘장 스님께서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교미술을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340시간을 들여 제작한 졸업작품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긴 김성문 씨(채널명 ARTUBE_불교미술)도 'MJ 스튜디오'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문 씨는 "저만의 세계관을 담은 작품으로 불교미술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깨닫다' 등 불교적 메시지를 현대적인 디자인과 유머로 풀어내 큰 반향을 일으킨 해탈컴퍼니의 주여진 대표도 조만간 'MJ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예정이다.

묘장 스님은 "영상과 SNS의 영향력이 큰 시대인 만큼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창작자들이 편안하게 활동하게 도와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업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풍부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각 사찰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스튜디오를 만들고자 한다면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동산불교대, 2년제 '한글 불교전문강원' 신설

현대인 생활 패턴에 맞춤 교육
총 6학기 일반·심화 과정 운영
신규탁 학장·화강 스님 등 강의


신규탁 학장.

사단법인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이 한문 경전 위주의 전통 강원 교육을 한글로 풀어낸 '한글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해 현대인 맞춤형 불교 교육에 나선다.

동산불교대학(학장 신규탁)은 오는 3월 4일부터 서울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에서 2년제 정규과정 '한글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한문 경전 해석 중심이었던 전통 강원 교육의 문턱을 낮춰 일반 불자들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조선 시대 〈경국대전〉의 승과(僧科) 제도와 전통 강원의 커리큘럼을 계승하되, 한글을 사용해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한글 불교전문강원'은 봄·가을·겨울 각 4개월씩 1년 3학기(트라이매스터, Trimester) 제도를 도입해 총 6학기,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일반과정은 한글 교재를 중심으로 불교 경전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심화과정은 원문 대조와 주석서 강독을 통해 불교 강사를 양성하는 전문가 과정이다.

두 과정 모두 △원각경 △대승기신론 △능엄경 △금강경 △화엄경 △선문염송 등 전통 강원의 필수 교과목을 2년에 걸쳐 완독한다.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학습 접근성을 높였다.

강의진도 탄탄하다. 연세대 철학과에서 32년간 화엄과 선불교를 연구해 온 신규탁 학장이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화엄경, 선문염송 등의 주요 과목을 직접 강의하며, 강백 월운 스님의 제자인 화광 스님이 능엄경 강의를 맡아 깊이를 더한다.

신규탁 학장은 "선교양종(禪敎兩宗)의 전통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화엄의 교학을 바탕으로 선(禪)을 실천하는 자교오종(藉敎悟宗)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한다"며 "옛것을 익혀 새것을 만드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교육 전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글 불교전문강원'의 모집 정원은 일반과정 20명, 심화과정 20명이다. 심화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일반과정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동산불교대학은 2026년 정규과정으로 선어록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선어록 교육과정'(매주 목요일)도 운영할 예정이다.

입학 및 수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산불교대학 사무국(02-732-1206)으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中, 티베트 사찰 교육에 애국화 재교육 논란

티베트 불교 중국화 노력 추정
애국교육 강요·한문 불경 강조

중국 내 티베트 불교를 중국화하고 소위 '사회주의 가치'에 맞추려는 정책으로 인해 티베트 전역 사찰과 강원 등지에서 티베트어와 불경 대신 중국 당국의 애국화 재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17일 티베트 전문 뉴스매체인 '티베탄 리뷰'는 중국 당국의 보도 자료와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중국의 티베트 온라인 뉴스 서비스 '서장망'은 1월 16일, 쓰촨성 까르제(간쯔) 티베트자치주 데르게(더거)현에서 현지 종교계가 주관하는 '3가지 의식 연설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3가지 의식이란 중국 공산당에서 티베트 불교의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치교육 캠페인으로 △국가의식 △시민의식 △법치의식을 이른다. 해당 의식의 주요 골자는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는 중국 시민으로서 공산당이 정의한 법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비슷한 시기에 티베트 자치구 로카(산난)시의 쌈얘사원에서도 중국 민족에 대한 강한 국가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관과 신축 과학관이 개관됐다.

행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26명의 스님들이 대회에 등록했으며 9명이 결승에 진출했다. 보고서는 "결승에서 참가자들은 '3가지 의식'이라는 주제를 충실히 따르고 자신의 수행과 결합해 국가 공용어인 중국어로 명확한 견해와 진솔한 감정을 담은 연설을 했다. 애국심과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표현해 탄탄한 정책 지식과 훌륭한 애국정신을 보여 줬다"고 보고했다.

로카시의 행사 보고서는 "삼예사원의 교육관은 민족단결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개관됐으며, 특히 티베트의 출가자 대중이 중국민족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여 민족 결속, 종교 화합 및 사회 안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관 개막식에서 민족사 전문가인 탕둥은 "중화민족은 모든 민족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교육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교류와 통합의 역사, 그리고 모든 민족이 중화민족의 통일에 기여한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치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티베트 불교 고유의 강원체계에 따른 교학연찬과 수행가풍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강원교육에 필수적으로 애국교육을 넣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티베트어가 아닌 한문으로 된 불경을 공부하는 교과과정을 의무적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전통 강원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학을 마친 후 개인 암자나 토굴에서 무문관이나 안거수행을 하는 것도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개인 수행을 위해 세워진 암자나 토굴을 철거하고, 강원 졸업시험에 '한전불전(漢傳佛典)'이라는 항목으로 한문 불경시험을 추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최근 티베트 불교사찰들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정치적 재교육이 강화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티베탄 리뷰

감동, 즐거움, 쓸모 있는 인생수업을 위한 불교 강의

나를 비춰보는 가장 치열한 자기관리의 거울
2년제 한글 불교전문강원 (일반 · 심화과정)

강 좌 명		강의주제 및 교재	담당교수
1학년 (26년)	원각경 1학기(3월~6월)	인생이란 무엇인가? – 원각경경 · 현담 –	신규탁 (연세대 명예교수)
	기신론 2학기(7월~10월)	종교적 믿음의 본바탕 – 대승기신론 의기 –	〃
	능엄경 3학기(11월~2월)	명상의 근본 줄기와 총정리 –수능엄경주해 –	화광스님 (월운 강백 제자)
2학년 (27년)	금강경 1학기(3월~6월)	손에 잡히는 금강경 – 금강경 찬요 –	신규탁
	화엄경 2학기(7월~10월)	진리의 종합선물세트 – 주화엄법계관문 – – 화엄경나들이 –	〃
	선문염송 3학기(11월~2월)	선체험과 문학의 향기 – 정선선문염송설화 –	〃

◇ 개강일시 : 3월 4일(수) 14:00(심화과정), 19:00(일반과정)
◇ 모집정원 : 심화과정 20명, 일반과정 20명
◇ 수 강 료 : 학기당 24만원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강의 제공 예정

옛 스승들에게 배우는 마음경영 기술
선어록–지혜의 족보를 찾아보는 강의

	강 좌 명	교재 및 저자	담당교수
1학년 (26년)	마음 뿌리 찾기–위대한 스승들 1학기(3월~6월)	선문사자승습도: 규봉	신규탁
	한계를 뛰어넘는 몰입의 기술 2학기(7월~10월)	서장: 대혜	화광스님
	흔들리는 일상에서 마음 지키는 법 3학기(11월~2월)	서장: 대혜	〃
2학년 (27년)	허울을 벗고 나답게 사는 첫발 1학기(3월~6월)	선요: 고봉	신규탁
	인생의 주인이되는 결정적 지혜 2학기(7월~10월)	선요: 고봉	〃
	다섯 거장에게 배우는 유연한 사고법 3학기(11월~2월)	선문오종강요: 지안	〃

◇ 개강일시 : 3월 5일(목) 19:00
◇ 수 강 료 : 1학기 24만원(월 6만원)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강의 제공 예정

44년의 전통, 꿋꿋하게 지켜온 실천불교
3월 개강 – 특별 강좌

과목명	담당교수(강사)	개강일시	수강료
신법화론 (강의 영상자료 제공)	최봉수	3월 5일(목) 11:00 (기간: 3월~6월)	1개월 10만원
알고싶은 불교, 새로운 기본교리	신규탁	3월 7일(토)14:00 (기간: 3월~5월)	3개월 5만원
불교사상과 예술의 세계	강여울	3월 5일(목)14:00 (기간:3월~5월)	1개월 6만원
불교미술	법인 스님	3월 4일(수) 10:30 (1학기:3월~7월)	1학기 85만원
민화	문미영	3월 6일(금) 10:00 1학기: 3월~6월	1학기 60만원
전통범패의식	인각 스님	3월 10일(화)14:00 (1학기:3월~7월)	5개월 50만원
한글불교의식	문종순	3월 14일(토)13:00 (1학기:3월~7월)	1학기 30만원
행운을 부르는 인상학	김계화	3월 5일(목)15:00 (기간: 3월~5월)	1개월 5만원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대표전화: 02–732–1206 / (우)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